

LG그룹, 미래 경쟁력은 디자인

구본무 회장, 고객보다 한발 앞선 디자인 주문 ... 독창성 강조

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 될 디자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독창적 디자인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촉구했다.

구본무 회장은 5월8일 남용 LG전자 부회장, 김반석 LG화학 사장, 권영수 LG필립스LCD사장 등 최고경영진과 함께 서울 역삼동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해 디자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“디자인이 미래변화를 주도할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”이라면서 “고객의 잠재된 니즈(욕구)를 발굴해 고객의 생각보다 한발 앞서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출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보고자리에서는 휴대전화, 디스플레이, 생활가전 등 3개 분야의 고객감성을 강조한 디자인제품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선행디자인제품들을 살펴보고 분야 디자인 연구소장들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.

LG전자는 △디자인이 기술의 개발방향을 리드하는 선행디자인 프로세스 강화 △해외 디자인센터의 지역별 특화 △콘셉트(Concept), 스타일(Style), 사용성(Interface), 마무리(Finishing) 등 디자인 핵심역량 강화 △세계 최고 역량의 디자이너 전문가 육성 등 4대 디자인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.

<선행 디자인 프로세스 강화>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디자인을 주축으로 상품기획, 설계, 마케팅 등 관련부서가 협업팀을 운영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감성적 유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.
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5/08>